

코로나 시대 기독 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 연구

김정희(목원대학교/조교수)*

lalaente@mokwon.ac.kr

박은혜(성결대학교/부교수)

pehgrace@sungkyul.ac.kr

한글 초록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의 목회 방식에 큰 전환을 일으켰다. 대면 목회와 함께 인터넷과 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목회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물론 그동안 비대면 목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교회목회 가운데 비중이 현저히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면과 비대면 목회가 병행되는 환경 속에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노인은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현황과 그 영향을 정리하고, 기독 노인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기독 노인의 삶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마리아 해리스 교육목회 이론을 적용하여 기독 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이노니아 측면에서 모든 사람을 소외되지 않게 환대하며 포용하기 위해 기독 노인이 가지고 있는 유산, 신념, 가치관, 삶의 방식 등을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레이투르기아 측면에서 영성 수행을 위해 미디어를 활용한 공동 기도의 내용을 제공하는 등을 통해 노인의 기도 생활을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 제1저자 : 김정희, 교신저자 : 박은혜

영역으로 확대하여 기도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교육목회를 제안하였다. 셋째, 디다케 측면에서 노인들이 변화하는 기술에 익숙하게 반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교회는 가르침이 일어나는 환경을 온라인상으로까지 확대하며, 전통과 새로운 형태들의 교육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넷째, 케리그마 측면에서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기독교 노인들이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며, 말씀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것이 교제, 기도, 가르침, 그리고 봉사의 커리큘럼으로 녹아들어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노인 의식을 전환하여 스스로가 섬김의 객체가 아닌 섬김의 주체가 되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섬김과 봉사의 장을 확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

코로나19, 디지털 소외자, 기독교 노인, 신앙생활, 마리아 해리스, 교육목회

I. 들어가는 말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을 겪은 해라고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모든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엄청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년 초반부터 확산된 코로나19는 2021년인 올해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언제 종식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회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그로 인해 코로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목회 방안을 교단 차원과 개교회 차원에서 모색하여왔다. 이는 대면 목회에서 인터넷과 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목회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와같이 한국교회의 역사에 없었던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에 대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의 찬성과 반대의 각기 다른 반응들

은 있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목회 시스템에 영향을 준 지 일 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교회 구성원들은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며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종교활동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단절과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이 교회의 중심부에서 배제되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은 단순히 그들이 미디어 기술 방법을 배운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 행동, 관습 등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러한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맞이하게 된 디지털 세상 가운데 소외된 기독교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삶의 양식을 재구조화하는 교육목회적인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김정준,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현황과 그 영향을 정리하고, 기독교 노인에 대한 이해와 종교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마리아 해리스 교육 목회 이론을 적용하여 비대면 시대의 기독교 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미디어 기사를 검색하여 제시하고, 기독교 노인에 대해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고, 문헌 연구를 통해 마리아 해리스 이론과 연결하여 기독교 노인을 위한 교육목회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코로나19, 그리고 한국교회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여 확산된 이후 여타 국가들이 자국으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

허 혹은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한국은 위험 요인의 유입을 막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한 소독과 발열 검사, '자가진단 앱'등을 통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최대한 방어하려 노력했다(이재유, 2020, 67-68). 코로나19의 발병 초기 질병관리본부가 매우 빠르게 확진자들을 찾고, 그들의 위치 경로를 다방면에서 추적하여 접촉자를 가려내는 등의 행정을 수행하면서 코로나19를 확실히 통제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월 말부터 대구·경북지역의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2월 21일 대구·경북지역이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월 26일 국내 확진자가 1천 명, 3월 1일 국내 확진자가 5천 명을 돌파하면서 3월 16일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김정훈 외, 2020, 6). 이 과정 가운데 신천지 신도의 비협조적인 행태는 이단에 관한 관심을 촉발시켰으며,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개신교 교회의 집단 확진은 종교기관의 집단 활동에 대한 위험 의식도 동반 상승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종교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통해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하였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주일예배를 포함한 모든 행사가 점진적으로 중지되고, 교회 출입이 통제되기도 하였으며, 주일예배가 현장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 즉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상당수의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으나 대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를 받아들여 온라인 예배를 유지하거나 현장 예배의 규모 축소 또는 교회나 학교 운동장 등에 차를 정차하고 예배를 드리는 드라이브 인 워십(drive-in worship)이라는 새로운 예배 형태를 도입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20.4.12.; 최은택, 2020).

이후 2020년 3월에 들어서면서 한국 내 신규 확진자의 숫자는 감소하기 시작하였지만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4월 1일부터는 국적과 무관하게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14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를 실행하였으며, 자가격리자들을 원활하게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

도록 하였다(이재유, 2020, 72). 이후 신규 확진자의 감소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방침을 변경한 후 4월 19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게 되면서 진정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였고, 교회 집단 감염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후 확산세가 진정되는 듯 보였으나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기준으로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기 시작하였으며, 추석과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핼러윈 축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2021년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코로나19는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12월 초부터 2.5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세에 따라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나 IM선교회, 인터콥의 열방센터, 영생교, 사우나, 체육시설, 주점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감염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김정훈 외(2020, 20)가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에 있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규모 모임 및 단체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환자 및 접촉자 활동’과 ‘종교활동 등의 집회 개최’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 내 코로나19의 확산 주원인을 종교기관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집단전파의 원인으로 종교기관이 낙인찍히면서 종교계, 특히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으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를 요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예배 이외의 성가대 연습과 같은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해야 하며, 해당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집합 금지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당당뉴스, 2020.7.14).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초기에는 개신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교회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확산되었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대부분 교단 차

원에서 정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QR코드를 통한 출입명부의 관리 및 열화상 카메라/체온계의 도입 등이다. 그동안 교회는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간편하면서도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2021년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여전히 정규예배 외 모든 교회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되고 있으며, 정규예배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면 예배 참석인원은 교회 좌석율 대비 10-20%로 인원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그로 인해 여전히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공존하고 있으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교회 소모임과 프로그램도 금지되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Ⅲ. 기독 노인에 대한 이해 및 신앙생활

1. 기독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 목회 프로그램의 현황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고령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가속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수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돌봄의 필요성을 대두시켰으며, 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김정희, 2017). 대표적으로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가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혜택 및 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기반을 제시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교회 내 기독 노인에 대해 어떤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있을까? 이를 위해 기독 노인의 분포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사회의 노인 인구 분포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총 인구 51,361,911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7,066,060명으로 전체인구 중 약 13.8%, 2020년 총인구 51,780,579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8,125,432명으로 전체인구 중 약 15.7%를 차지하였다. 2025년에는 총인구 51,905,12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0,511,160명으로 전체인구 중 약 20.3%, 2035년 총인구 51,629,895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15,237,275명으로 전체인구 중 약 29.5%, 2050년에는 총인구 47,744,500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19,007,129명으로 전체인구 중 약 39.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9.3.28). 이와 같은 노인분포율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 노인 인구 중 개신교 분포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종교인구 분포도를 살펴보면, 전체인구 49,052,389명 중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21,553,674명 중 기독교(개신교)인은 9,675,761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기독 노인이 1,384,860명이다. 이는 전체 기독교(개신교)인의 약 14.3%를 차지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기독 노인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성별, 연령별, 개신교 인구(65세 이상)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186,932	251,728	65 ~ 69세	438,660
144,198	221,799	70 ~ 74세	365,997
100,861	181,676	75 ~ 79세	282,537
50,655	124,701	80 ~ 84세	175,356
27,071	95,239	85세이상	122,310

* 출처: 통계청 (2017.1.5.)

개신교 내 기독 노인의 비중이 높은 것에 준하여 기독 노인에 대한 교회의 이해나 배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교회별로 기독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회가 기독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있다. 이에 대해 2016년 감리교 교단에서 실시한 ‘노인 목회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감리교회의 186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노인 목회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6개 교회 중 70개 교회(37.63%)가 노인 목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노인 목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의 규모가 10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로서 인적·물적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김정준 외, 2018, 58-61). 노인 목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의 프로그램의 실태를 살펴보면, 효도 관광(48개 교회), 특정 날 식사 대접(30개 교회), 노인 대학(27개 교회), 노년성경학교(20개 교회), 실버 성가대(13개 교회), 동아리 활동(12개 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김정준 외, 2018, 60).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대체로 친교 유형의 일회성 혹은 단기성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와 목회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노인 목회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노인의 삶과 종교활동

2009년 UN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연령 분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특히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정의 내리던 것에서 벗어나 18-65세를 청년이라고 명명하였으며, 66-79세를 중년으로, 80-99세를 노년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였다(백찬규, 2017, 23). 이는 고령화로 인한 연령 구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를 보완하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의학 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

이 향상되면서 노년기에도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음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나타나는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 대비 집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길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노인의 신체적인 활동의 제한은 심리적인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소외감, 우울증, 불안, 낮은 자존감 등의 현상을 초래한다(최창식·한재희, 2013, 216). 또한 노년에 겪게 되는 생활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을 촉발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악화시키기도 한다(김정희, 2014, 201; 권석만·민병배, 2000, 59).

노인들의 삶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종교이다. 그리고 종교적 활동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노년기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관계망이 종교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으로 회복되고, 생활만족감과 안녕감을 증진시켜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허기한, 2010, 321). 특히 연령의 장벽이 낮은 종교활동은 노인으로 하여금 타인과의 친밀감, 소속감, 관심과 애정 등을 경험하게 하여 그들의 외로움, 소외감, 고립감, 낮은 자존감, 우울감의 해소를 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노년의 무의미할 수 있는 여가 시간에 종교활동을 장려하고 직·간접적인 사회활동을 도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는 등의 행위를 통해 노인 개인의 자존감을 유지 및 고취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서문진희, 2010; 김정희, 2014). 그러므로 노인의 주관적 종교활동과 개인적 종교활동 등이 높을수록 신체적, 심리적 노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김동규, 2002, 52; 이영숙, 2010, 70-71; 허준수, 2011). 특히 고령의 노인일수록 종교활동을 통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고령 노인이 될수록 신앙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 기능 저하 및 상실, 죽음에 대한 불안 등에 대한 위로와 안녕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김정희, 2014).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한은 노인의 활동반경을 축소했으며, 그에 따른 우울감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김성중, 2020).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교회 활동의 제한은 기독 노인의 심리적, 정신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강성봉과 조성숙(2013, 340)에 의하면, 교회의 성경공부와 같은 교제 소모임이나 예배 참여 등은 우울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중요한 사실은 종교활동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신앙생활의 태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기독 노인이라는 의식만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활동이 결부되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한 활동반경의 축소 및 제한은 기독 노인의 우울감을 증가시킬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수록 삶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하여 자살의 충동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외감과 고립감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가중될수록 자살 가능성과 충동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최창식·한재희, 2013, 244).

IV. 코로나 시대 노인의 신앙생활의 위기 및 교육목회 방안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직접 소통에서 간접 소통으로의 변화 및 오프라인 마켓에서 온라인 마켓으로의 변화, 배달문화의 확대 등을 가져왔다. 이는 교회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가 강조되었으며, 그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위한 미디어 도구들이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교회 홈페이지는 다시 활기를 띠었으며,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예배 및 온라인 교제 등이 이루어졌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연결 시대를 살아오면서도 실생활에서 경험하기에는

미진했던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럽게 큰 파도가 되어 덮쳐오게 된 것이다. 물론 미디어 활용을 통한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과거와 달리 참여와 활동에 필요한 앱이나 프로그램, 인터넷 주소 등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어디에서나 상관없이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은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야 할 지점은 바로 변화 부적응자의 존재 여부이다. 대체로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향유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미디어 소수자로 전락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미디어와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단절, 부적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교회 예배를 비롯한 기타 활동과 관련한 온라인 활동에 노인들이 능숙하게 접속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예배의 참여나 소모임의 온라인 교제 등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맥루한과 피오르(McLuhan & Fiore, 2001)가 말한 바와 같이 미디어가 우리 삶의 상호의존성과 그에 따른 다양한 양상들을 재형성하고 재구성한다고 볼 때, 지금까지 노인들이 미디어에 적응해 온 것은 단지 미디어를 내용이 아닌 수단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김정준, 2017, 171), 미디어가 주는 변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적응은 아직 미비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 및 교회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의 활동 축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됨을 주지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재교육이 필요할 때이다.

노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해왔던 신앙생활의 방식에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노인들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Yuval Harari, EBS 다크프라임, 2021)가 말한대로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면, 이 위기를 잘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필

요가 있다(유재덕, 2020).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목회적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 있다고 보아 교회생활의 전과정을 통전적으로 이해한 마리아 해리스의 교육과정 개념을 적용하여 노인을 위한 교육목회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마리아 해리스의 교육 개념과 노인 교육

코로나 시대 기독 노인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을 마리아 해리스의 교육이론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리스(Harris, 1997, 47)는 자라나는 세대인 어린이만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교육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 인생에 걸친 평생 교육이어야 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교육을 위한 논의에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해리스(1997, 49-52)는 교육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 가시는 예술적 과정으로 보고, 형태를 부여하는(forgiving) 활동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삶의 형태를 재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교육의 방향과 목적이 전통적인 지식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배운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경험을 재생산, 재창조, 재형성, 재조직하며, 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노인은 다른 세대보다 많은 경험을 축적한 세대이기에 해리스가 주장한 대로 노인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방향과 목적을 성취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해리스(1997, 47)는 교육이란 정해진 교리 교수나 설교의 가르침을 초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일방적 가르침으로 직접적인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산파(midwife)와 조력자(helper)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를 상호의존과 상호 협력 과정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협력자의 공동체”로 설명하고(Harris, 1987, 28), 그에 따른 양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교육을 강조한다(Harris, 1987, 110). 따라서 노인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자가 아닌 노인들로부터 가르치며 배울 수 있는 존재로서, 노인들과 협력하며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가르치고 배울 때 교육적 효과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해리스(1997, 64)는 교육은 정보전달과 지식 전수를 위한 가르침을 넘어서서 마음과 신체, 자기와 타인, 자기와 세계의 통합을 일으키는 영적이며 전인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노인 교육은 신체적이며 심리적인 노화에 대해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재이해와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자기 이해를 넘어 타자에 대한 이해로 확장하여 통전적인 삶의 지평을 넓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해리스는(1997, 48) 학교 교육(schooling)의 형식적 교육의 개념을 넘어서는 비형식적 교육도 중요시하여 여러 형태들의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식적 및 비형식적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 교육은 학교 교육의 개념처럼 인식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교육목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해리스(1997, 34)가 말하는 교육은 이방인, 힘없는 자, 소외된 사람들 등을 포함한 모두를 향한 포괄적인 교육이다. 기존의 내적(inner) 및 초월성의 영성(transcendent spirituality)뿐만 아니라 외재적(outer) 및 내재적 영성(immanent spirituality)을 함께 강조하는 균형잡힌 통전적인 영성, 통합을 추구하는 영성교육을 추구한다. 교사와 학생의 통합, 종교적인 분열의 극복, 남성과 여성의 통합, 다양한 소재들의 통합, 학문의 통합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교육활동, 교육참가자, 교육목적의 통합도 주장한다(오혜

선·조윤옥, 2016, 208). 전통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도록 통합, 어린이부터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의 통합, 가르침만이 아닌 예배, 선포, 교제, 섬김의 교육의 통합, 교회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곳으로의 교육의 장의 통합 등을 통해 모든 분리와 분열을 치유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비전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가정, 교회, 사회 등의 현장에서 소외된 노인 역시 다른 세대와 함께 포괄 및 통합하는 통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일곱째, 해리스(1997, 50-51)는 가르침이란 형태를 발견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 형태의 참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인지능력은 감소하지만 감정은 여전히 삶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예술 형태의 참여적 교육을 통해 노인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지성을 감정과 통합하면서 통찰 또는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2. 마리아 해리스의 커리큘럼 개념을 반영한 노인교육목회 방안

교회의 전 생활을 교회의 커리큘럼으로 본 해리스는 목회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교회 생활의 다섯 가지 활동을 커리큘럼의 형태들로 설명하며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목회적 소명은 “삶의 방식에로의 부름이요, 특별한 삶의 방식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이다(Harris, 1997, 28).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났던 대로 예수님처럼 변화, 변혁, 그리고 밝혀져야 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제사장적, 예언자적, 그리고 왕적인 또는 정치적인 백성으로서의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제사장으로서의 목회적 소명은 전통들을 보존하며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일이다. 예언자로서의 목회적 소명은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인간의 고통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을 나타내

며 미래의 비전들과 희망들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백성(왕)으로서의 목회적 소명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설계하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가능하게 하여 현재의 삶을 분별력 있고 의식과 가치가 있는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Harris, 1997, 31-33).

세 가지 목회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한 교회 생활의 다섯 가지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케리그마(kerygma)를 위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삶의 언어로 실천하고 구현하는 활동이다. 둘째, 가르치는 활동인 디다케(didache)를 위해 교실 수업을 포함하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장 적절한 교수와 학습의 형태에 관심을 갖는 교육 활동이다. 셋째,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빵을 나누어 예수를 기념하는 예전(leiturgia)을 위해 예배, 기도, 영성의 형태에 관여하는 활동이다. 넷째, 공동체성을 지닌 코이노니아(koinonia)를 위해 공동체와 교제의 형태(형식)에 관여하는 활동이다. 다섯째,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디아코니아(diakonia)를 위해 교회 내 봉사과 개인적, 공동체적, 지역적, 세계적으로 세상에 대한 섬김의 활동이다(Harris, 1997, 21, 52). 해리스는 이 다섯 가지 양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 생활의 다섯 가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에 연결하여 코로나 시대의 기독 노인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커리큘럼

해리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서 생활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나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공동체의 교제를 교육 사역에서의 출발점으로 강조한다. 공동체의 뿌리는 사랑이며 또한 과제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방식은 공동체의 세 가지 양식, 즉 다스리는 실재, 죄를 깨닫게 하는 실재,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불완전한 실재로서의 양상을 부여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Harris, 1997, 92). 그녀는 공동체의 형태로

포용성, 지도력, 봉사의 과제를 지닌 지역 교구와 참여 내지 현존성, 수용성, 책임성의 과제를 지닌 가정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역 교회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포용하여 환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인들의 ‘우리 의식’은 교회 내에서도 교제, 친교, 사귄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과 교회의 노인교육 프로그램도 지역교회의 구역, 선교회, 셀모임 등과 같은 소그룹, 노인 대학 등 교회에 국한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회 밖의 세상에는 무관심하고 배타적으로 되어 소외될 위험이 있다(백은미, 2018, 233).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교육이 이러한 의식을 넘어 교회 밖 이웃, 세상, 심지어 온라인 세계로까지 확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시대의 코이노니아는 현재는 아니지만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될 사람들을 환대하고 포용하기 위해 ‘교회 밖 교회’를 열고 가꾸는 시도가 온라인상에서도 필요하다(김효숙, 2018, 127-128).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 소수자로서 노인들은 능동적 생산자가 아니라 수동적 소비자로서 미디어를 통한 교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해리스가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을 소외되지 않게 환대하며 포용여 포괄적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제에 필요한 미디어 활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노인이 가지고 있는 유산, 신념, 가치관, 삶의 방식 등을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유튜브 예배 채널에 댓글달기, SNS에 좋은 글이나 설교 등 포스팅, 영상크리에이터로서 활동 등 온라인상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 레이투르기아: 기도의 커리큘럼

레이투르기아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회적 소명에 따른 교회생활이다.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개인적인 기도는 입술로 하는 기도, 명상적인 기도, 관상적인 기도가 있고, 공동의 기도는 기도모임, 퇴수회, 그리고 예배행위가 있다. 기

도의 커리큘럼 과제는 “하나님 앞에 선 채 세계 속에 존재하는 방식”인 영성(Harris, 1997, 125), 성서를 원천자료로 사용한 기도와 정의의 통합,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역할 부여 및 참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기도를 소명으로 인식하고 수행하도록 자원들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커리큘럼은 새벽기도, 금요기도, 산상기도 등이 있다. 이는 대체로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에 모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레이투르기아는 사회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보다 개인의 필요와 구원에 치중하여 왔다(강문규, 2017, 566). 그러나 코로나19는 인간과 인간의 밀접한 접촉을 제한하였으며, 그로 인해 함께 모이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교회와 사회가 분리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작은 행동이 전염병을 확산하게 만들어 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혹독하게 받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기도의 커리큘럼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고통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며 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백은미, 2018, 237-240).

이에 코로나 시대에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도구로 공동의 기도 내용을 제공하여 기도 생활을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여 기도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노인을 위한 레이투르기아 교육목회를 제안한다. 기존에 해왔던 교회 내 개인의 기도 생활을 일상의 삶으로 옮겨 모일 때나 헤어질 때나 기도의 삶을 살도록 하고, 공동의 기도를 통해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노인은 타인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타자와의 관계의 연결통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자기 존재를 재확인하며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때, 개인의 변화를 위한 내적 기도와 사회 변화를 위한 외적인 기도가 균형을 가지는 기도의 커리큘럼이 될 수 있다.

3) 디다케: 가르침의 커리큘럼

디다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생애,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교육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교회 생활에 대한 지도, 전통의 전수, 성경의 해설 및 적용을 하는 교리문답 교육과 설교와 같은 내적인 형태들만이 아니라 재해석, 질문, 분석, 거절과 저항의 행위를 포함하는 오늘의 형태들이 있다(Harris, 1997, 145). 디다케는 교회 구성원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르침이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이때 교사는 가르침의 형태들의 목록을 개발하는 과정적인 과제와 기독교적 전통을 넘어서 다른 종교적 및 문화적 전통 등에 대해 폭넓은 범위로 접근하여 가르치는 내용적인 과제를 가진다(Harris, 1997, 143-150).

이러한 가르침을 위해서는 교육의 방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가르침을 통해 가능성을 창조하고, 우리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의 중심인 상상력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 상상력은 매우 중요하다. 상상력은 어떤 지식보다 우선하며(백은미, 2002, 409),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게 하며(추태화, 2001, 11),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인식하며, 미래를 변형시키는 실천적 능력이 되게 한다(김영래, 2007, 69-70). 해리스에게 있어서 디다케는 학습되어야 할 지식과 이에 대한 실행을 포함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고에 고정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을 의미한다(강문규, 2017, 513).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고정된 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꺼내어 신앙과 연결시키도록 질문하고 분석하고 재해석 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인 학습자는 각자 오랜 시간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 능력도 다른 학습자에 비해 개인차가 크다. 따라서 획일적인 교육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다양한 영상, 사진, 예술 작품 등을 활용하여 각자 느끼게 하고, 인지적 및 정서적 개인차를 고려하여 자신의 것을 다양한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김효숙, 2017,

225-226). 더불어 표현의 장을 SNS나 온라인상으로 확대하여 공유하도록 구체적인 안내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4) 케리그마: 말씀선포의 커리큘럼

케리그마는 말씀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서, 성서, 신학, 설교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케리그마 커리큘럼의 과제는 첫째, 실제적인 경청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제사장적 경청, 둘째, 옳지 않은 말씀, 불의, 부정의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예언적 발언, 셋째, 공적인 영역에서 발언할 책임성을 지닌 정치적인 변호이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리스는 이를 말씀의 성육화라고 표현한다(Harris, 1997, 154).

케리그마 커리큘럼은 예배에서의 설교를 통한 선포로 행해지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말씀은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다. 그러나 해리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 성육화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선교 초기에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로 모여서 며칠 동안 사경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찰려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 역사를 이 시대에도 다시 일으켜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노인은 고립감, 외로움, 소외감, 우울증, 답답함 등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의 강단에서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비대면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직 낯설고 어색한 노인들이 이를 순차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해야 한다. 해리스가 말하는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가 사회에서 실현되도록 소외되고 억압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기에, 코로나 시대에 더 힘없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하도록 노인들을 교육해야 한다.

5) 디아코니아: 봉사의 커리큘럼

디아코니아는 타자를 환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고 섬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몇몇 사람에게만 속한 사역도 아니며, 자선도 아니며,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조장하여 노역이 되는 것도 아니다. 죄책감보다는 감사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디아코니아의 형태는 첫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적 돌봄, 둘째, 의식, 철야, 행진, 퍼레이드 등과 같은 행동들의 조직된 방법에 따른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실천하는 사회적 의식, 셋째, 의존하려고 하는 것을 제거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능력부여, 넷째, 사회적 입법 활동을 감시하며 재정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사회적 입법이 있다(Harris, 1997, 180-189).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노인들은 스스로를 섬김을 받는 수혜자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육체적 기능의 쇠퇴로 인해 더 이상 봉사와 섬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노인으로 하여금 섬김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노인의 재능기부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코로나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 이 방법의 실현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비대면 시대에 노인이 섬김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다. 비대면 시대는 디지털 시대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해리스가 말한 사회적 돌봄, 사회적 의식, 사회적 능력부여, 그리고 사회적 입법 활동 등을 위해서도 디지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어떤 돌봄과 능력 부여가 필요한지, 어떤 주제로 사회적 의식을 하고 있는지,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사회정의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찾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매체들을 능동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디

털 활용은 노인의 신체적 결합과는 상관없이 대면과 비대면 공간에서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돌봄망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회적 봉사에 대한 포스팅을 통한 섬김과 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과 그에 따른 교회의 대처 방안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소수자인 기독 노인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종교활동의 중요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교육 목회적 방안을 해리스의 다섯 가지 교회 생활의 커리큘럼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첫째, 코이노니아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확대하며 포용하기 위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유산, 신념, 가치관, 삶의 방식 등을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레이투르기아 측면에서 영성 수행을 위해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 공동 기도문을 제공하고, 기도 생활을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여 기도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교육목회를 제안하였다. 셋째, 디다케 측면에서 노인들이 변화하는 기술에 익숙하게 반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가르침이 일어나는 환경을 온라인상으로까지 확대하여 전통과 새로운 형태들의 교육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넷째, 케리그마 측면에서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기독 노인들이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며, 말씀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교제, 기도, 가르침, 그리고 봉사의 커리큘럼으로 녹아들어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노인 스스로가 섬김의 객체가 아닌 섬김의 주체가 되도록 노인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섬김

과 봉사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사, 선행연구, 그리고 문헌들을 통해서만 연구하고 방안을 제안하였기에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로 한국교회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목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찾기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문규 (2017). 현대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모색-마리아 해리스의 기독교교육 이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56, 545-575.
- [Kang, M. K. (2017). Christia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modern korean society: With focus on maria harris' theory on Christian education. *Theology and Praxis*, 56, 545-575.]
- 강성봉, 조성숙 (2013). 노인의 종교활동과 신앙태도가 우울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3(10), 325-346.
- [Kang, S. B., Cho, S. S. (2013). Effects of religious activities and faith attitudes on depression and ego-integrity of the elderly.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10), 325-346.]
- 권석만·민병배 (2000). **노년기 정신장애**. 서울: 학지사.
- [Kwon, S. M., Min, B. B. (2000). *Mental disorder of old age*. Seoul: Hwakjisa.]
- 김동규 (2002). 노인의 종교 및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Kim, D. G. (2002). Research on the factors impa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senior citizens religious and social activities: Focusing on senior citizens in gimcheon city, gyeongsangbuk-do province. Unpublished master degree, University of Mokwon.]
- 김성중 (2020).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3, 39-64.
- [Kim, S. J. (2020).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9-64.]
- 김영래 (2007).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서울: 땅에쓰신글씨.
- [Kim, Y. R. (2007). *Christian education and the next generation*. Seoul: Writing on the Ground.]
- 김정준 (2017). 21세기 한국 사회와 노인 목회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기독교교육논**

총, 50, 155-199.

[Kim, J. J. (2017).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and new tasks and directions for pastoral care to the older generation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0, 155-199.]

김정준 외 (2018).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감리교회의 노년목회**. 서울: 인테그리티.

[Kim, J. J. et al. (2018). *Age of 100, senior pastoral ministry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Seoul: Integrity.]

김정희 (2014). 노인의 우울증과 종교 활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신학과 현장**, 24, 195-214.

[Kim, J. H. (2014).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beliefs of elderly. *Theology & Context*, 24, 195-214.]

김정희 (2017). 노인 빈곤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기독교교육논총**, 50, 233-259.

[Kim, J. H. (2017). Christian reflection on the elderly pover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0, 233-259.]

김정훈 외 (2020). 경기도민이 바라본 코로나19. **이슈&진단**, 410, 1-25.

[Kim, J. H. (2020). Corona 19 as seen by gyeonggi. *Issue & Analysis*, 410, 1-25.]

김효숙 (2017). **기독교교육공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Kim, H. S. (2017). *Christian educational technology*.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ublishing Department.]

김효숙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목회. **기독교교육정보**, 58, 113-138.

[Kim, H. S. (2018). Educational ministry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8, 113-138.]

백은미 (2018). 탈경쟁 사회를 위한 연민의 교육목회. **신학과 실천**, 58, 223-248.

[Paik, E. M. (2018). Compassionate educational ministry for non-competitive society. *Theology and Praxis*, 58, 223-248.]

백은미 (2002). 성서 교육에서의 새로운 도전들: 해방, 상상력, 그리고 멀티미디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 399-424.

[Paik. E. M. (2002). New challenges to biblical education: Liberation, imagination, and multimedia.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24, 399-424.]

백찬규 (2017). **젊은 노인의 탄생**. 서울: 원앤원북스.

[Baek. C. K. (2017). *The birth of a young old man*. Seoul: One and One Books.]

서문진희 (2010). 종교와 노인의 우울증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교회사회사업**, 12, 67-95.

[Seomun. J. H. (2010).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depression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people. *Church Social Work*, 12, 67-95.]

오혜선, 조윤옥 (2016). 교회의 통전교육을 위한 종교적 상상력 연구: Maria Harris의 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49, 203-231.

[Oh. H. S., Joe. Y. O. (2016). Religious imagination for the holistic education in church : Based on maria harris' Theory.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9, 203-231.]

이영숙 (2010). 노인들의 종교 활동 및 신앙성숙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료복지연구**, 1(1), 61-77.

[Lee. Y. S. (2010). The effect of elderly faith maturity on successful aging.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1(1), 61-77.]

이재유 (2020). 코로나 19 대응 관련 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 및 국제법적 평가. **서울국제법연구**, 27(1), 65-101.

[Lee. J. Y. (2020). The immigration restriction measures of korea regarding covid-19 and their assessment under international law.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27(1), 65-101.]

유재덕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3, 13-37.

[Yu. J. D. (2020). Church education in the covid-19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13-37.]

최은택 (2020).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 모형: 비블리오드라마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3, 91-120.

[Choi. E. T. (2020). A study of the model Christian familial-spiritual education for the era of covid-19.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91-120.]

최창식, 한재희 (2013). 노인의 종교정향성과 삶의 태도 및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1), 213-251.

[Choi. C. S., Han. J. H. (2013). Path analysis for elderly orientation, life attitude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4(1), 213-251.]

추태화 (2001). **상상력의 유혹**.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Choo. T. H. (2001). *The temptation of imagination*. Seoul: Yeyoung Communication.]

허기한 (2010). 크리스천 노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4(2), 313-337.

[Heo. G. H. (2010). A study on transformational proces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 quality in Christian senior citizens. *Theology and Praxis*, 24(2), 313-337.]

허준수 (2011). 노인들의 고독감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관 이용노인과 비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101-131.

[Heo. J. S. (2011). Determinants of loneliness among the users and non-users of senior welfare center.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53, 101-131.]

Harris, M. (1987). *Teaching and religious imagination*.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Harris, M. . (1997). **회중 형성과 변형을 위한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영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9 출판)

[Harris, M. (1997). Fashion me a people-curriculum in the church. (Ko, Y. S.

Trans) Seoul: Korea Presbyterian Church Publishing Department.
(Original Book 1989 Published)]

McLuhan, M. & Fiore, Q. (2001). **미디어는 맛사지다**. 김진홍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원전 1967 출판)

[McLuhan, M. & Fiore, Q. (2001). *The media is the message*. (Kim, J. H. Trans)].
Seoul: Communication Books. (Original Book 1967 Published)]

이병왕 (2020.7.14.). 교계 마침내 화내다 “교회가 감염 온상이냐?”. 당당뉴스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32> 추출
일 2020.7.14.

[Lee, B. W. (2020.7.14.) The religious world finally gets angry “Is the church a
hotbed of infection?”. Dangdangnews.]

김철선 (2020.4.12.). 코로나19 고비에 맞은 부활절..., 서울 일부 교회들 현장예배 강
행.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2030900004> 추출
일: 2020. 4. 20.

[Kim, C. S. (2020.4.12.). Easter on the brink of covid-19...Some churches in
seoul push ahead with on-site worship. Yonhapnews]

통계청 (2017.1.5.). 성별/연령별/종교별 인구-시군구.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vw_cd=&list_id=&scrId=&seqNo
=&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 추출일: 2020. 5. 20.

[Kosis (2017.1.5). Population by Gender/Age/Religion-SiGunGu.]

통계청 (2019.3.28.). 주요 인구지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BPA0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
ko&obj_var_id=&itm_id=&conn_path=K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 추출일: 2020. 5. 20.

[Kosis (2019.3.28.). The leading Population Indicators.]

다큐프라임 (2021.2.2.). 포스트 코로나 - 3부 새로운 국가의 탄생. EBS,
[https://docuprime.ebs.co.kr/docuprime/vodReplayView?siteCd=DP&courseId=
BP0PAPB0000000005&stepId=02BP0PAPB0000000005&lectId=20437892&searc
hType=&searchKeyword=&searchYear=&searchMonth](https://docuprime.ebs.co.kr/docuprime/vodReplayView?siteCd=DP&courseId=BP0PAPB0000000005&stepId=02BP0PAPB0000000005&lectId=20437892&searchType=&searchKeyword=&searchYear=&searchMonth) 추출일: 2021. 3. 15.

[Docuprime (2021.2.2). Post-corona - Part III the birth of a new country. EBS]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Religious Life of the Christian Elders
during the Corona Period**

Jung Hee Kim

Assistant Professor, Mokwon University

Eunhye Park

Associate Professor, Sungkyul University

Corona 19 brought about a major shift in the Korean church's pastoral style. Contact and non-contact ministry styles using the Internet and media devices are being held together. The elderly, who have been classified as digital vulnerable, need to see whether they are properly adapting to these changes and they have any difficulties in their religious lives. This study is to organize the current status of Corona 19 related to Korean churches,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church programs for Christian elderly people, look at how important the religious life is to their lives, and to suggest educational pastoral methods for their religious lives based on the theory of Maria Harris' educational ministry. First, in terms of Koinonia, it was suggested that the heritage, beliefs, values and ways of life held by the Christian elderly be shared with people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in order to entertain and embrace everyone without alienation.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Leiturgia, educational ministry was proposed to expand prayer life from a personal area to a public area to become a life of practicing prayer and justice by providing public prayer content with media that can be used by the elderly to perform spirituality. Third, it was suggested that in terms of Didache, it should be required that the elderly should be educated to be

familiar with the changing technologies, that teaching environment should be extended from church to online, and that the educational content of tradition and new forms should be dealt with extensively. Fourth, from the perspective of Kerigma, Christian elderly people who have suffered in various life environments, both personally and socially, should listen to the words again and gain the power to overcome the corona crisis through the God's words, so that they can be melted into the curriculum of koinonia, leiturgia, didache, and diakonia. Fifth, it was suggested that senior citizens should switch their consciousness to become subjects of service, not objects of service, and that digital literacy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dividually at eye level to narrow the digital gap for Diakonia curriculum.

《 **Keywords** 》

Corona 19, Digital isolator, Christian elders, Religious life, Maria Harris, Educational ministry

- 투고접수일 : 2021년 5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6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28일